

보도시점 2026. 6. 12.(금) 배포 2026. 6. 12.(금)
간담회 시작(14:30) 이후

응급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대구경북으로 확대

- 대구·경북 이송 지침 개정 관련 간담회 개최 -
- 응급의료 AX 통한 응급환자 이송지연 개선 기술 시연 -
- 대구는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 경북은 헬기 등 장거리 이송책 마련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12일(금) 오후 2시 30분에 경북대병원을 방문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9월 내 전국 확산 완료한다는 국무회의 보고(5월 26일)에 맞춰 대구·경북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대구·경북형 스마트 이송체계’에 대한 시연과 대구와 경북의 개정된 이송 지침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먼저 기술 시연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혁신 모델인 AI 진료지원 체계를 살펴보았다. 이 체계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응급환자의 구급차 탑승부터 응급실 치료까지 전 과정에 AI를 도입하여 환자 상태를 AI가 분석해 최적의 병원을 찾아 이송 지연을 방지하고 응급실 의료진의 진료 결정을 효율화하는 시스템이다.

기술 시연회에 참석한 경북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인공지능 전환(AX)이 구현된다면 병원 내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동시에 한정된 응급실 병상과 인력으로도 더 많은 환자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게 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AI 기반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현재 수립 중인 ‘AI 기본의료 전략’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어서 대구·경북의 이송지침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구는 영남권의 핵심 거점으로서 인근 시·도와 환자 수용·진료의 연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 기관 간 소통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 경북은 넓은 면적에 비해 의료기관 분

포가 고르지 못하며, 산악지형과 울릉도 등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헬기 이송, 이송-전원 연계 등 중증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에 대비한 이송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두 지역 모두 광역상황실이 지역 내 대응이 어려운 환자의 이송 병원 선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논의된 지침 개정안은 6월 내 시행하며, 시행 이후에도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에 지속 검토하며 조정해간다.

한편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26.3~5월, 광주·전북·전남)」의 주요 작동 기제는 시·도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이송지침을 정비하되, 이송 지연 시 광역상황실을 통해 전국적으로 이송병원을 수배하거나 이송-전원 통합 연계 또는 우선수용병원 지정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광주·전라 지역의 일평균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미수용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현장 평가가 있는 만큼, 9월까지 신속하게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대구·경북이 그리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확인하고 고민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었다” 라며,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른 시·도의 시범사업 확대 상황을 면밀하게 챙기겠다” 라고 하였다.

**<붙임> 1. 대구·경북 이송지침 주요 내용
2. 응급의료 AX 주요 기술시연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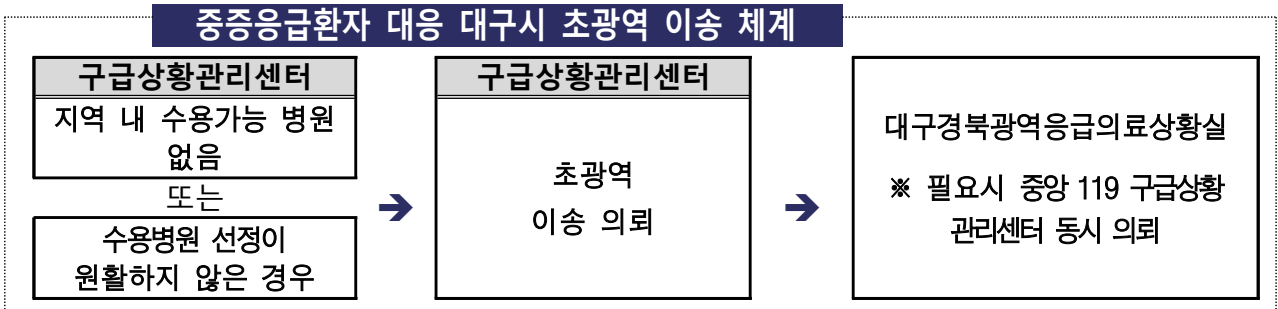
담당 부서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	책임자	과 장	송영진 (044-202-2550)
		담당자	사무관	이태경 (044-202-2563)
담당 부서	첨단의료지원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책임자	과 장	박정환 (044-202-2380)
		담당자	사무관	권용진 (044-202-2947)



□ **대구광역시**

- **중증응급환자(pre-KTAS 1~2)는 다중이송전원협진망을 가동하고(권역/지역센터 6개소에 동시 의뢰), 수용곤란 시 우선수용병원 선정하여 이송**
- 다만, 수용병원 선정 원활하지 않을 시* 초광역 이송체계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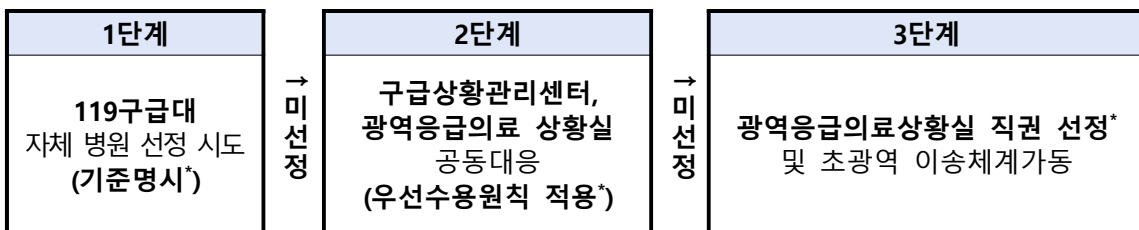
* ①배후진료 자원(전문의, 병상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된 환자)와 ②특수응급질환(고위험 산모, 신생아, 소아외상, 중증외상 등) → ①, ② 중 지역 내 이송 가능병원 부재 시



- **중등중증응급환자(pre-KTAS 3) 병원 선정 곤란 시,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에 준해서 이송병원 선정**

□ **경상북도**

- 119 구급대 현장상황 병원 선정하고, 지연 시 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광역상황실 공동대응
- 우선수용원칙 수립(해당 권역 내 권역·지역센터에서 우선수용병원 역할 수행)



- 최종 치료 위한 전원 필요 시 119 구급대 이송 협조, 의료취약지 응급환자는 닥터헬기·소방헬기 활용
- 응급분만 등 전문질환 진료협력체계 반영

붙임2

응급의료 AX 주요 기술시연 내용

① (시연1) 심근경색 '시간민감성 환자' 이송→수용

- ※ (목적) 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Pre-KTAS(중증도) 자동 분류, 구급-병원 간 정보교류
- 구급대원 발화 기반 환자 활력징후 수집 및 심전도 분석, 중증도 분류
→ AI 추천 우선 이송병원에 환자 정보전송, 필요한 진료자원 사전 확인

<구급: 모바일 단말>

<경북대학교 응급의료진 SAVE-R 화면>

Pre-KTAS 등급	환자명	나이	성별	주요진단	경과시간 (현재 시작 시간)	수용 병원 상태	원격진료	이송 예정	거리
Pre-KTAS 2	김수미	66			0분	2025-06-03 18:08		• 응급대기	5.7km
Pre-KTAS 2	김민지	68			30분	2025-06-03 17:02		• 수송 가능	응급실
Pre-KTAS 4	주희	65	남	주요진단	15분	2025-06-02 11:38		• 응급대기	3.2km
Pre-KTAS 2	신민	66	남	주요진단	15분	2025-06-01 19:38		• 응급대기	1.5km
Pre-KTAS 1	신민	66	남	주요진단	25분	2025-06-01 14:07		• 응급대기	15.8km
Pre-KTAS 2	김수미	66			25분	2025-06-01 15:06		• 수송 가능	원격진료

② (시연2) 상태 악화된 '문제환자' 이송, AI 기반 병원 내 처치 보조

- ※ (목적) 권역 내 문제환자 이송 문제 해결, 적시에 최적의 치료 제공을 위한 진료 보조
- 지역의료원으로 이송된 환자 상태 악화로 상급병원 재이송 필요(문제환자)
→ AI 추천 우선 이송병원 재요청(중증환자 기준) 및 문제환자 알람 지원
→ 상급병원 도착 후 AI 활용한 다중중증도 상황의 복잡한 임상 결정 지원*
- * 삼성서울병원 AEGIS: 응급실 초진 지원, 진단.처방 추천 CDSS 등

<전체 병원: 문제환자 발생 SAVE-R 화면>

<상급병원: AEGIS 진단.처방 보조 화면>

[마이데이터] 진단, 처방 추천 CDSS
Verified: Thu, Aug 2, 2025 | Updated: Thu, Aug 14, 2025

사례 #1
CKD로 주 3회 투석을 받는 54세 남성이 3일 전부터 공복 혈당 300이상, 흉치 시 수축기 혈압 180~200mmHg 측정되었다. 환자는 전일 투석 이후에도 전신 부종 및 지속적인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여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Patient information

성별: Male Female

기본정보

나이: 54 years

Serum Creatinine (optional): 4 mg/dL

마이데이터 (optional)